

전주시, 아중호수 생태공원 조성

2018년까지 50억원 투입... 산책로·가족숲 등 갖춘 관광명소로 꾸미기로

전주 아중호수 주변을 역사와 생태가 어우러진 자연친화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화된다. 전주시는 오는 2018년 말까지 총 50억원을 들여 아중호수에 생태산책로를 조성하고, 소풍광장과 가족숲, 화장실 주차장 야외무대 등을 갖춘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아중호수는 전주천 삼천과 함께 전주를 대표하는 수자원으로, 시는 동부권의 아중호수와 인근 기린봉의 고유한 생태자원을 활용해 남부권 한옥마을과 북부권 덕진공원·생태동물원

등과 함께 전주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개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시민들과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아중호수를 걸으며 주변 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아중호수 주변공원 산책로를 조성하고, 맑은 호수 유지 등 아름다운 수변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방안 모색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시는 아중호수 및 인근 기린봉의 생태자원을 활용한 체형·학습공간, 휴식공간 조성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는 쉼터를 제공하고 관광객들에게는 자연 친화적인 관광콘텐츠를 제

공하는 등 남녀노소에게나 사람 받는 자연친화적 친수공간으로 정착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시는 한옥마을로 편중된 관광객 동선을 아중호수 등 동부권까지 확대하는 것은 물론 서부신시가지 및 혁신도시 개발 이후 침체된 아중호수 주변 상권도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최근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아중호수 주변 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아중호수 주변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등 남부권 상권도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아중호수가 지나는 상징성과 문화·생태적 특성, 시민 및 탐방객들의 접근성 등을 고려한 기본구상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설계용역이 완성되면 지역 주민 등 시민들과 전문가, 관계자 등과의 협의 및 의견조율을 거쳐 아중호수 생태공원 조성(안)을 확정,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아중호수 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지난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의 2016년도 관광지원 개발사업 대상에 포함되면서 추진동력을 확보하기도 했다. 시는 내년 2월부터 본격적인 조성사업에 착공, 오는 2018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영재기자

선거현수막 훼손 3명 검거

술에 취해 4·1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현수막을 훼손한 일행이 경찰에 붙잡혔다. 정읍경찰서는 5일 선거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안모(20)씨와 김모(19)군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일 정읍시 시기동에 설치된 선거현수막을 뜯어내 도로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현수막 훼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수사담당반은 물론 강력팀 형사까지 나서 42시간만에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범행 동거나 배후를 숨기고 있지 않음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인진수기자



행복 희망 나무심기

제7회 식목일을 맞아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전북도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및 임업단체 300여 명이 한국농수산대학에서 행복, 희망 나무심기 행사를 갖고 감나무, 살구나무 등 유실수 2,100여 그루를 식재하고 있다.

행복 희망 나무심기 제7회 식목일을 맞아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전북도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및 임업단체 300여 명이 한국농수산대학에서 행복, 희망 나무심기 행사를 갖고 감나무, 살구나무 등 유실수 2,100여 그루를 식재하고 있다.

전주시청 로비 열린 공간으로 재탄생

'폼엔카페'·'책방' 갖춰

전주시청 로비가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책을 읽고 차를 마실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된다. 전주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공공기관 연계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폼엔카페' 조성과 전주 관련 도서를 시민들이 손쉽게 만나볼 수 있는 전

주책방을 시청로비에 조성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민원처리를 위해 시청사를 방문했던 시민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던 공간인 시청로비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커피와 차를 마시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된다. 특히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1층에 들어서는 폼엔카페는 전체 근로자의 60% 이상 또는 최

소 2명 이상의 중증장애인이 고용된다. 시는 장애인복지사업을 주로 하는 장애인 직업재활 수행기관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시청로비 2층에는 시민들이 전주관련 도서와 전주에서 활동하는 작가의 서적, 전주출신 작가의 책을 만날 수 있는 전주 책방이 조성된다. 시는 폼엔카페와 전주책방 운영을 위해 중축에 따른 구조 보강공사를 먼저 실시한 후 인테리어공사에 들어가 오는 6월말까지 공사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김영재 기자

전북대병원, 문화휴게공간 개장

본관 지하1층에 푸드코트 운영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이 직원 및 내원객들의 휴식과 편의를 위한 문화 휴게 공간을 대폭 확충했다. 5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병원 본관 지하 1층에 직원 및 내원객들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푸드코트와 죽과 음료를 제공하는 휴게공간을 개장해 지난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푸드코트 'chaf&u'는 전용면적 506㎡에 총 25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한식 일식 중식 및 동원 약식 반상을 제공하고 있다. 내원객들이 편의를 위해 연중무휴로 운영하며 이용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다.

푸드코트 옆에는 병원을 방문하는 내원객들의 휴게공간을 겸해 환자를 위한 죽 메뉴와 간식 및 음료 등을 제공하는 '죽이야기'와 '넉넉도너츠' 편의점 등을 별도로 개장했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한다.

전북대병원은 그동안 병원 규모에 비해 휴게 공간이 부족해 환자 및 내방객들의 문화 편의시설 확보요구가 있어왔다. 이번 푸드코트와 휴게공간 등의 운영으로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 및 환자, 보호자들이 보다 다양한 공간에서 편의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김영재기자

전주시, 고독성농약 수거

전주시가 사용이 전면 금지된 고독성농약에 대한 일제 수거에 나선다. 전주시는 고독성 농약인 '메소밀'로 인한 인명 피해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4월 한 달 간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메소밀액제 및 수화제(메소밀 라네이트, 메소란) 등 등록이 취소된 고독성 농약을 일제 수거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메소밀'은 최근 경북 청송에서 발생한 농약소주 사건과 상주 농약사건

다 사건 등에 오용돼 인명사건을 일으킨 고독성 농약으로, 무색무취의 투명 액체로 각종 식용료에 혼합 시 식별하기 어렵고 소량으로도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농약이다. 메소밀은 지난 2011년 12월 등록이 취소됐으며, 지난해 11월 이후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이에 시는 오는 30일까지 메소밀 일제 수거기간으로 정하고, 양 구청과 각 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공무원 방문조사와 마을방송 등 활용 가능한 홍보수단을 활용해 홍보를 실시하고 수거에 나설 계획이다.

/김영재 기자

세계유산 등재 2주년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 전북도, 후속대책 3개분야사업 추진

미륵사지 석탑 복원 왕궁리 유적발굴 등 2025년까지 완료

전북도가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2년째를 맞아 세계유산 등재 후속대책에 나섰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초부터 추진한 세계유산 등재 후속 대책이 낮은 인지도와 관광 인프라 부족 등의 영향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해 이번에 지역주민과 역사문화·관광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새로운 후속 대책이 3개 분야 사업에 걸쳐 추진된다.

이번에 도가 수립한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 후속 대책의 3개 분야 중점 사항은 먼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요건인 세계유산적 가치의 지속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익산 미륵사지 석탑(국보 제11호)복원사업(2017년 완공)과 왕궁리 유적 발굴작

업(2020년 완료)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백제 왕도 핵심유적을 2025년까지 복원 정비한다는 것이다. 또한 도로·상가·숙박시설 등 관광 인프라 구축과 함께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끝으로 충남도, 익산·공주·부여 등 5개 지자체와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는 공동 협력사업 추진과 15년 등재당시 제외된 익산토성, 제석사지, 쌍릉 등 우수한 백제유적에 대한 세계유산 확장등재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는 앞으로 백제 유적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국내·외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와 보존관리 등을 위해 20개 사업에 150억원이 투자된다. 또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왕궁리 유적 공결단장 정비 사업, 세계유산 통합안내관 및 이정표 등 각종안내관 제작 설치 등에 198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이어 도는 전북, 충남, 익산, 공주, 부여 등 5개 지자체와 유적 주변 지역 주민과의 공동 협력 사업 14개에 대해 30억원을 투자한다.

/정영수기자

익산시공고 제2016-680호

익산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결정(변경)(안) 주민의견청취 공고

익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및 「도시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규정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의견윤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계획(안)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총괄조서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면적 (㎡)	노선 수	면적 (㎡)	노선 수	면적 (㎡)	노선 수	면적 (㎡)				
기정 합계	18	9,419	46,1470	8	7870	445,156	4	1,277	13,383	4	471	2,931
변경 합계	10	7,996	442,905	8	7,225	435,795	3	717	6,774	1	54	346
기정 광로	1	5,702	425,127	1	5,702	425,127	-	-	-	-	-	-
변경 광로	1	5,702	425,959	1	5,702	420,959	-	-	-	-	-	-
기정 도로	-	-	-	-	-	-	-	-	-	-	-	-
변경 도로	-	-	-	-	-	-	-	-	-	-	-	-
기정 광장	2	610	7,954	1	180	1,296	1	470	6,608	-	-	-
변경 광장	2	201	2,816	1	38	303	1	185	2,507	-	-	-
기정 소로	13	3,086	26,989	6	1,808	16,733	3	807	6,725	4	471	2,931
변경 소로	7	2,093	19,138	4	1,487	14,523	2	552	4,287	1	54	346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세부조서: "계개 생략"
다.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면적 (㎡)	노선 수	면적 (㎡)	노선 수	면적 (㎡)	노선 수	면적 (㎡)				
기정 합계	18	9,419	46,1470	8	7870	445,156	4	1,277	13,383	4	471	2,931
변경 합계	10	7,996	442,905	8	7,225	435,795	3	717	6,774	1	54	346
기정 광로	1	5,702	425,127	1	5,702	425,127	-	-	-	-	-	-

라. 결정(변경) 사유: 장기비점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하여 우선해제대상 시설중 조정가능한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의 해제 및 변경

2. 열람기간: 산본 제2차 익산로2구 1차안
3. 열람장소: 익산시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과
4. 의견제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시민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도시개발과(063-859-55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필계도서: "계개 생략"

2016년 4월 6일 익산시장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